

암 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

(자궁암)

조순자씨 (45세 · 대구시 수성구 중동 614의 14)



『모든 병을 치료하는
 지름길은 조기발견, 조기치료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상연 컴시소장(左) 과
 이경연 간호원(右)
 조순자씨를 숨어서
 뒷바라지 해준
 사람들이다.

『제가 가본 대구직할시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참 좋네요./ 시간도 많이 안걸리고예./ 친절하고 모든 절차가 시작에서 통지를 받을때까지 질서가 있으며, 여러가지 검사와 예방주사도 부담이 안되고 좋습니다...』



『제가 가본 대구직할시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종합병원과 똑같이 안하는 검사가 없구예 참 좋네요! 시간도 많이 안걸리고예./

친절하고 모든 절차가 시작에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질서가 있으며, 여러가지 검사와 예방주사도 부담이 안되고 좋습니다.....』

『어서들 올라오세요..』하며 장본인 조순자씨는 이렇게 말하며 반기었다.

평소 건강할때에는 건강관리에 대하여 소홀하였다기보다 몰랐던 것을 일깨워 주었다며, 뜻있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첫마디가 환호의 감탄사처럼 들렸다.

필자도 수긍이 되는 말이었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켜야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 마다의 공감일 것이다.

중병에 걸려 병원을 찾는 시대와는 달리 질병의 조기발견에서 조기치료를 지향하는 성인병에 대하여, 사람마다의 건강에 관한 재발견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겠다.

대구직할시 시내 변두리에 위치한 개천가 해 맞은 동네(수성구 중동 614의14)에서 거주하는 중년 알뜰 주부인 조순자씨. 나이는 45세로서 부군 김익주씨(농협근무)사이엔 당당한 두형제를 두고 시부모를 모시고사는, 전통적 한국가정을 꾸려 나가는 보기드문 현대 여성으로 바쁜 생활속에서도 동네의 반장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일은 동네에서 학교어머니회의 일, 청소년선도위원, 여성 정화위



'83년 9월, 일상생활에서 본인만이 느끼고 알수있는 이상 출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시초의 나날이었지요.

원, 그밖에 학교동창회 등의 일을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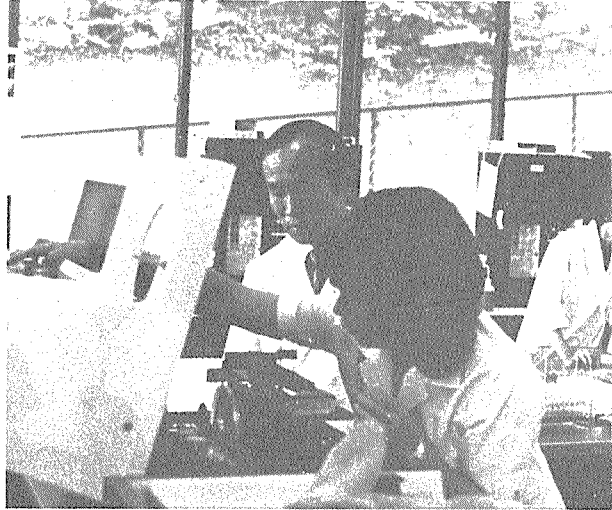
83년 9월, 일상생활에서 본인만이 느끼는 증상이...

강인한여성으로서의 그녀는 관내 기관장의 표창과 감사패도 받은 바 있는 동네에서도 선망과 존경을 받고있는 명랑하고 활달한 몸인데 불행히도 지난 한때 즉, 83년부터 불운의 그것(본인의 딸) 자궁암을 알게 되어 주위 사람들의 애타함이 그치지를 앓았었다.

이상한 느낌(자궁암)을 가지고 지난 '83년 9월, 일상생활에서 본인만이 느끼고 알수있는 이상 출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시초의 나날을 보내다가 차츰 접촉성 출혈에 신경을 쓰게되어 하루는 근처의 모 의원에 가서 진찰과 여러가지 검사를 받아본 결과(나중에 알았으나 자궁암 검사도 받았따함) 의사 선생의 말씀이 아무 이상이 없고 염증이 좀 있어 그런 것 같으니 1주일 정도 염증 치료를 받으면 나올것이라하여 치료를 받았더니 그후 출혈도 멈추고 씻은 듯이 깨끗하여 염증이 아주 완쾌된 줄 알았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 선생님의 과학적 진단이 틀림없는것으로 믿었던 내가 이 병을 오래 끌게 하였던것 같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그러하게 되었던것도 사람마다 각기 체질에 따라 자궁암 발생

조순자씨의 운때가 말느라 반장으로서는 반상회를 주최 하다보니 각종검사 및 간염검사를 한다는 란을 보고 혹시나 나의 지병은 ? 하고 간염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건강관리협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 재기의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84년 7월 반상회보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알았어요.

인자의 진행 또는 소멸이 다르다는것도 병을 겪고 나서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84년에 들어 또다시 지난날에 있었던 증세가 더하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정신적 고민을 불러 일으켜 간간히 접촉 출혈을 재현 하게되었고 몸이 쇠약해지며 마르기 시작하여 체중이 줄어드는데다가 안색은 검어지고 쳐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물골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몸이 나른 하였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같이 하여주며 병원에 가보라기도 하였으나 나 자신은 작년의 진찰 검사를 상기하며 설마하고 차일피일 하던차, 지난 '84년 7월, 한국건강 관리협회 대구직할시 지부가 경상북도 지부로부터 분가된 사항과 건강관리협회 사업을 반상회보를 보고 자세히 알았죠.』

조순자씨의 운때가 말느라 반장으로서는 반상회를 주최 하다보니 각종검사 및 간염검사를 한다는 란을 보고 혹시나 나의 지병은 ? 하고 간염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건강관리협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 재기의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부인네들은 정기적인 자궁암검사를 받아야한대요.

반회보를 본 조순자씨는 혹시나 다른지병이 아닌가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간



검사결과 소견은 집으로 통지를 한다고 하여 즉석에서 친구와 같이 손쉽게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던 것이 뜻밖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궁암선고를 받게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염검사를 받기위해 대구지부 건강관리협회를 방문하여 간염검사를 받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원 이경연씨가 부인네들은 이기회에 정기적인 자궁암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때 지난날을 되새기며 혹시나 하여 왔던 김에 검사를 받아 보게된 것이 보람있는 재기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경연 간호원의 권유에 병원에서도 같이 복잡한 절차와 검사과정을 밟는 것 인줄로만 알고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설명을 듣고보니 가검물 채취에 본인 자신이 부끄럽없이 간단하게 할수있는 알구진 기구? (가토식 자궁암 채취기)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수술료도 큰 부담이 안되었으며 또한 검사결과 소견은 집으로 통지를 한다고하여 즉석에서 친구와 같이 손쉽게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던 것이 뜻밖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궁암선고를 받게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판독결과서를 보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검사 의뢰 후 일주일쯤 지났었죠. 누우런 봉투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사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받았어요. 문세광박사(건협대구지부 관리의사)의 판독 결과였죠. 헌데 그 판독결과서를 보고 그만 정신이 아찔했어요. 자궁암Class 3기라는 결과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로서 표현 못할
 방황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날인가 대구지부
 이경연간호원에게서 전화가
 왔었지요. 요즈음 건강은
 어떻고, 큰 병원에는
 안가느냐는 내용이었어요.



가족들에게는 물론 가까운 친지들에게까지 충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것은 가족들에게는 물론 가까운 친지들에게까지 충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억제 시킬려고 다른 전문의들에게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보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요.』

『그렇게 말로서 표현 못할 방황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날인가 대구지부 이경연간호원에게서 전화가 왔었지요. 요즈음 건강은 어떻고, 큰 병원에는 안가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지난날 방황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조순자씨의 얼굴에서 무엇인지 모를 착잡하였던 심정을 필자는 느낄수 있었다.

모든병의 치료에 대한 지름길은 조기발견 조기 치료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결과를 알고 한달후인 10월 초순경에 영남대학병원을 산부인과로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고 정밀검사를 받았지요.

결과가 며칠 후에 나왔는데 자궁암 0기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어요. 당시 담당의사이신 정원영 박사님이(영남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 어떤 병이던간에 치료의 지름길은 조기발견, 조기치료라는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술을 빨리 하는 것



퇴원하여서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행동등 모든 것을 조심하고, 병원의 지시대로 예후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 결과 현재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요.

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15일간의 병원생활이 꼭 150일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후 입원했어요. 내몸에 칼을 대는 무서운 형벌을 받기 위해서죠. 수술후 병원생활 15일간은 무척이나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꼭 150일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수술대에 몸을 실은 때의 마음은 뭐라 표현 할 수가 없어요. 내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원망만 할 뿐이었지요.』

『퇴원하여서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행동 등 모든것을 조심하고, 병원의 지시대로 예후관계를 관찰하기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 결과 현재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요.』

지역사회요원으로서 가정에 복귀 하게되었음을 다시한번 감사한다면서 건강관리협회와 병원은 물론 아빠를 위시하여 온 가족과 걱정을 끼치게한 이웃에게 감사를 잊지않는다고 했다.